

정신지체아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및 사회적 지지와의 관계

정추영^{1*}, 서영숙²

대구보건대학교 간호학과

Relationship among Parenting Stress, Self-Esteem and Social Support on Mental Retardation Child Mother's

Chu-young Jeong^{1*}, Young-sook Seo²

Department of Nursing, College of Daegu-Health

(Received September 20, 2016; Received September 28, 2016; Accepted October 03, 2016)

Abstract

Purpose. The study verifi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ental retardation child mother's parenting stress, self-esteem and social supports.

Methods. The subjects were 250 mothers who had their children with mental retardation educated and who experienced to receive social services in U City. They were asked to answer the questionnaire and 134 subjects resent the questionnaire. The survey information was analyzed by SPSS 18.0.

Results.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 effected on the parenting stress; In accordance with the severity of handicap, the level of the stress was different, self-esteem are the mother's educational attainment. The social supports in functional perspective are the religion.

Conclusion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arenting stress and social support, self-esteem and parenting stress the both have negative relationship, More information support, emotional support, economic support, evaluating support get the less the parenting stress, and self-esteem have. The parenting stress and self esteem are highly related.

Key Words : Mental retardation, Parenting stress, Self-esteem, Social support

*Corresponding author : jcy0902@dhc.ac.kr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자녀의 출생은 부모에게 심리·사회적 안정감을 주기도 하지만 반면에 자녀 양육으로 인한 경제·심리적 부담감을 느끼게 하고, 육체적 피로감을 겪는 등 많은 변화를 초래한다¹⁾. 더구나 장애아를 양육해야 하는 부모의 부담은 비장애아 부모에 비해 증가하며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존재하는 사회구조와 문화에서 가족 구성원 중 가장 부담감을 느끼는 존재는 어머니일 것이다²⁾.

201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전체 장애인 수는 약 273만명이며³⁾, 이들 중 정신지체장애인은 7.1%(약 18만명)를 차지하며 30세 미만이 약 50.1%를 차지하고 있다³⁾. 의학의 발달과 생활 수준 향상으로 장애아 사망률과 부모의 부담이 감소되었다고 하나¹⁾³⁾, 정신지체아동은 일상생활 능력의 결여나 저하, 대인관계 장애, 만성적인 신체 건강문제 등을 동반하기 때문에 특별한 양육과 보호를 필요로 한다⁴⁾. 또한 연령이 증가할수록 다양한 생활 사건을 경험함으로써 인해 판단력의 저하로 인한 의사결정의 문제로 인해 다른 유형의 장애인보다 더 많은 위기를 겪게 된다³⁾⁴⁾. 따라서 정신지체장애인은 성인기 이후에도 지속적인 보호를 필요로 하며 정신지체아 어머니는 정신지체아의 삶의 질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이로 인해 주 양육자인 어머니의 역할에 대한 부담감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⁵⁾.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대처자원 중 개인의 내적 특성인 자아존중감은 스트레스 과정에서 발생하는 요구를 처리하는 능동적인 요소이다⁶⁾⁷⁾. 특정 상황이나 사건을 한 개인이 스트레스라고 평가하게 되면 자아존중감이 위협을 받게 되는데⁸⁾⁹⁾, 사회적 지지는 스트레스 수준과 자아존중감의 위협을 감소시켜 심리적 안정감을 얻게 한다⁸⁾¹⁰⁾.

장애아동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Jung¹¹⁾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를 적게 받는 대상자들이 비관적인 태도를 더욱 높게 나타냈으며, 사

회적 지지가 자아존중감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게 함으로써 부정적인 스트레스의 영향을 완화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사회적 지지는 긍정적인 정서를 높여 개인의 적응 수준을 향상됨으로 장애아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에 대한 중요한 대처자원이라 사료된다.

한편 장애아동 어머니를 대상으로 주 양육자로서 가장 열의 있는 치료 교육자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도록 하여 장애자녀 양육과 관련된 정보제공과 부모간 관계형성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양육 스트레스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⁵⁾⁶⁾. 또한 장애아동 가족에 대한 심리적, 사회적 및 물질적 지원은 가족 구성원 개인의 심리적 적응과 문제해결 능력이 향상되어 결과적으로 삶의 질을 증진시키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²⁾.

장애아 어머니의 스트레스에 관한 선행연구로는 뇌성마비 아동 어머니의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¹⁴⁾, 장애유형에 따른 장애아 어머니의 스트레스와 주관적 삶의 질에 관한 연구¹¹⁾, 장애아동 어머니의 스트레스와 대처행동¹²⁾¹³⁾ 등 많은 연구들이 있다. 반면 간호학 측면에서의 중재 전략을 개발하기 위해 정신지체장애아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양육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및 사회적 지지와 관련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신지체아 자녀를 둔 어머니들의 양육 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 및 사회적 지지 정도를 확인하고 각 변수 간의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정신지체아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간호중재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특성을 파악한다.

둘째, 대상자의 양육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및 사회적 지지의 정도를 파악한다.

셋째, 대상자의 특성별 양육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및 사회적 지지의 정도를 파악한다.

넷째, 대상자의 양육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및 사회적 지지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정신지체아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및 사회적 지지 정도를 파악하고 변수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2016년 7월부터 8월까지 U시 소재의 정신지체장애인 주간보호센터 4개소, 단기보호센터 3개소, 그룹 홈 2개소, 작업활동실 2개소 및 장애아전담 어린이집 4개소에 이용 중인 정신지체장애아 어머니 368명을 대상으로, 어머니의 연령대를 기준으로 비비례 할당표집방법을 이용하여 25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면접 및 가정통신문 발송의 방법을 통해 이루어졌고 총 250부를 배부하여 146부를 회수하였으며 이 중 응답이 불성실한 자료를 제외하고 총 134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사전에 해당 기관 및 시설장의 허락을 받았으며 종사자들에게 직접 배부하여 설문지 작성에 대해 교육하였다. 또한 연구 대상자에게 본 연구의 결과는 연구의 목적으로만 활용할 것이며 대상자의 개별 자료는 어떤 목적으로든 공개하지 않겠다는 설명을 충분히 하였다. 자료수집 중 원치 않으면 언제라도 설문조사를 거부할 수 있음을 알리고 연구 참여에 동의를 구한 뒤 서면으로 동의서를 작성하여 연구의 윤리성을 확보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양육 스트레스

장애아동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를 측정하

기 위해 Holroyd와 McArthur¹⁵⁾가 개발한 도구를 Crnic, Greenberg와 Ragozin 등¹⁶⁾이 52문항의 간략형 척도로 구성한 것을 Jung¹⁷⁾이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일상생활과 관련된 스트레스 9문항, 가족사회적 관계에서의 스트레스 14문항, 자녀의 장애원인, 치료교육 및 예후에 관련된 스트레스 15문항, 부정적 심리상태에 관련된 스트레스 6문항으로 총 4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매우 그렇다”의 5점부터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Jung¹⁷⁾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87$ 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89$ 였다.

2.3.2. 자아존중감

본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Rogenberg¹⁸⁾가 개발하고 Jeong¹⁹⁾이 사용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긍정적인 문항 5개, 부정적인 문항 5개,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부정적인 문항은 역으로 처리하여 점수의 범위는 최하 10점에서 5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Jeong¹⁹⁾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86$ 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79$ 이었다.

2.3.3.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기 위하여 Park²⁰⁾이 개발하고 Kim²⁾이 수정·보완한 20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도구를 사용하였다. 문항의 내용은 정보적 지지 4문항, 정서적 지지 8문항, 물질적 지지 4문항, 평가적 지지 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매우 그렇다” 5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으로 사회적 지지의 범위는 20점에서부터 10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를 더 많이 받는다고 지각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Kim²⁾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97$ 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91$ 이었다.

2.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18.0을 이용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양육스트레스, 자아존중감, 사회적 지지는 서술적 통계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둘째,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양육스트레스, 자아존중감 및 사회적 지지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t-test, ANOVA를 이용하였다.

셋째, 대상자의 양육스트레스, 자아존중감 및 사회적 지지와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분석한 결과, 연령은 20~39세가 73명(54.5%)으로 많았으며, 직업은 전업 주부가 100명(74.6%)이었다. 인지된 건강상태는 보통 52명(38.8%)으로 가장 많았으며, 장애자녀의 연령은 8세 이상 32세까지의 학령기 자녀 및 그 이상이 70.9%로 나타났다. 성별은 남아가 87명(64.9%)으로 많았으며 출생순위는 첫째(외동 포함)가 55.2%로 가장 많았다. 장애정도는 1급이 80명(59.7%), 2급이 38명(28.4%), 3급이 16명(11.9%)순 이었다. 발병 시기는 4~5세 사이가 60명(47.0%)로 가장 많았으며 가사조력자가 없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125명(93.3%)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정신지체 장애의 가족병력 유무에 대한 문항에서는 131명(97.8%)이 없는 것으로 응답하였다(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134)

Characteristics	Categories	Frequency	%
Age(years)	20-39	73	54.5
	40-59	61	45.5
Job	Housewife	100	74.6
	Private practice	9	6.7
	Service	11	8.2
	Office work	2	1.5
	Professional	7	5.2
	Other	5	3.7
Health condition	Very healthy	6	4.5
	Healthy	45	33.6
	Usually	52	38.8
	Unhealthy	29	21.6
	Very unhealthy	2	1.5
Religion	Protestant	23	17.2
	Catholic	10	7.5
	Buddhism	67	50.0
	None	32	23.9
	Other	2	1.5
Income satisfaction	Very satisfactory	17	12.7
	Satisfactory	31	23.1
	Usually	42	31.3
	Unsatisfactory	40	29.9
Disabled child age	Very unsatisfactory	4	3.0
	1-7	39	29.1
	8-32	95	70.9
	Sex of child	Male	87
Female		47	35.1
Birth rank	No response	3	2.2
	1st	74	55.2
	2nd	51	38.1
	3rd	6	4.5
Degree of disabled	1st grade	80	59.7
	2nd grade	38	28.4
	3rd grade	16	11.9
Onset time	≤ 1	28	20.9
	2-3	37	27.6
	4-5	60	47.0
	6 ≤	6	4.5
	No response	3	2.2
Housekeeper	None	125	93.3
	Housework helper	1	0.7
	Parents	4	3.0
	Other	1	0.7
Family history	Yes	3	2.2
	No	131	97.8

3.2. 양육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및 사회적 지지 정도

대상자가 지각한 양육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사회적 지지를 분석한 결과, 총 양육 스트레스의 점수는 최대 5점에 문항 평균 3.01±0.46점으로 나타났으며, 하위 요인 별로 살펴보면 장애 원인·교육 및 예후에 관한 스트레스가 3.37±0.41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부정적 심리상태에 관련된 스트레스 2.98±0.84점, 일상생활과 관련된 스

트레스 2.85±0.71점, 가족·사회적 관계 스트레스 2.74±0.58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 점수는 최대 5점에 문항 평균 3.42±0.45점으로 나타났으며, 총 사회적 지지의 점수는 최대 5점에 문항 평균 3.07±0.57점으로 나타났다. 하위 요인 별로 살펴보면 정서적 지지가 3.16±0.60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평가적 지지 3.19±0.59점, 정보적 지지 3.04±0.65점, 물질적 지지 2.79±0.66점의 순으로 나타났다(Table 2).

Table 2. Degree of Parenting stress, self-esteem and social support among each domains(N=134)

Dimensions	Minimum	Maximum	Mean±SD	Observe range
Parenting stress			3.01±0.46	
Daily life	1.00	4.00	2.85±0.71	1 - 5
Family, social relation	1.00	4.00	2.74±0.58	1 - 5
Cause, education and prognosis	1.00	5.00	3.37±0.41	1 - 5
Negative emotion	1.00	5.00	2.98±0.84	1 - 5
Self-esteem	1.00	4.00	3.42±0.45	1 - 5
Social support			3.07±0.57	
Informative	1.00	4.00	3.04±0.65	1 - 5
Emotional	1.00	4.00	3.16±0.60	1 - 5
Economic	1.00	4.00	2.79±0.66	1 - 5
Evaluative	1.00	4.00	3.19±0.59	1 - 5

3.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양육스트레스, 자아존중감 및 사회적 지지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양육스트레스, 자아존중감, 사회적 지지를 분석한 결과, 연령에 따른 양육스트레스 수준은 20~39세가 40~59세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학력에 따른 스트레스 수준은 전반적으로는 학력이 낮을수록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최근 건강상태에 따른 양육 스트레스 수준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을수록 더 높게 나타났다. 장애자녀의 연령에 따른 스트레스 수준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학령기 및 그 이상 연령대의 자녀를 둔 경우 스트레스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자녀의 성별에 따른 양육스트레스 수준은 유의한 차

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장애자녀가 남아인 경우가 여아인 경우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다. 가사조력자 유무에 대한 양육 스트레스($t=1.75, p=.001$)와 자녀의 장애 정도에 따른 양육 스트레스($F=9.363, p=.000$)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학력에 따른 자아존중감의 정도가 유의한 차이($F=7.148, p=.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어머니의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의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연령, 최근 건강상태, 장애자녀의 연령, 장애자녀의 성별 및 장애 정도에 따른 자아존중감 정도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대상자의 사회적 지지 정도는 종교 유무에 따른 사회적 지지 정도에서만 유의한 차이($t=1.68, p=.001$)를 보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대상자일수록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Table 3. Differences of Parenting stress, self-esteem and social support according to characteristics (N=134)

Characteristics	Parenting stress			Self-esteem			Social support			
	Mean±SD	t/F	p	Mean±SD	t/F	p	Mean±SD	t/F	p	
Age(years)	20-39	3.02±0.46	.238	.812	3.48±0.52	1.952	.053	3.08±0.58	.312	.755
	40-59	3.00±0.54			3.33±0.60			3.05±0.47		
Education level	≤Middle school	3.06±0.47	1.372	.257	3.24±0.44	7.148	.001*	3.01±0.63	.506	.604
	High school	3.03±0.51			3.40±0.42			3.11±0.61		
	≥University	2.87±0.71			3.68±0.55			3.01±0.60		
Health condition	Healthy	2.91±0.45	1.935	.149	3.48±0.67	.872	.421	3.17±0.42	1.867	.159
	Usually	3.04±0.63			3.39±0.57			2.95±0.47		
	Unhealthy	3.10±0.52			3.37±0.68			3.10±0.53		
Religion	Yes	3.13±0.45	.820	.112	3.44±0.57	1.121	.267	3.61±0.55	1.68	.001**
	No	2.91±0.47			3.35±0.32			2.82±0.64		
Housekeeper	Yes	2.83±0.61	1.75	.001**	3.42±0.54	1.112	.265	3.11±0.55	.574	.354
	No	3.64±0.43			3.32±0.41			3.01±0.62		
Disabled child age	1-7	2.91±0.47	-1.532	.128	3.52±0.64	1.716	.088	3.17±0.62	1.281	.132
	8-32	3.05±0.60			3.37±0.57			3.03±0.47		
Sex of child	Male	3.02±0.63	.420	.675	3.45±0.59	1.114	.267	3.10±0.58	.762	.132
	Female	2.99±0.47			3.36±0.44			3.02±0.64		
Degree of disabled	1st grade	3.68±0.55	9.363	.000*	3.43±0.52	.434	.649	3.06±0.49	.052	.133
	2nd grade	2.91±0.61			3.36±0.68			3.08±0.54		
	3rd grade	2.89±0.64			3.46±0.49			3.10±0.64		

* : p< 0.05, ** : p<0.01

3.4. 사회적 지지와 양육 스트레스,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3.4.1. 사회적 지지와 양육 스트레스와의 관계

사회적 지지와 양육 스트레스와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각각의 하위요인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정보적 지지($r=-.329, p<.01$), 정서적 지지($r=-.347, p<.01$), 물질적 지지($r=-.262, p<.01$), 평가적 지지($r=-.331, p<.01$) 및 총 사회적 지지($r=-.350, p<.01$) 모두가 총 양육 스트레스와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 스트레스의 하위요인별로 구분하여 사회적 지지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일상생활과 관련된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의 하

위요인과의 관계에서만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제외한 모든 관계에서는 부적 상관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Table 4).

3.4.2.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총 사회적 지지는 자아존중감과 상관관계($r=.325, p<.01$)를 보였다. 또한 사회적 지지의 하위요인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정보적 지지($r=.271, p<.01$) 정서적 지지($r=.307, p<.01$), 물질적 지지($r=.281, p<.01$) 및 평가적 지지($r=.333, p<.01$)는 자아존중감 정도와 모두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Table 4. Correlations Coefficients of Among Observed Variables (N=134)

Variable	Daily life stress	Family, social relation stress	Cause, education and prognosis stress	Negative emotion stress	Parenting stress	Self-esteem
Informative support	-.061	-.345**	-.284**	-.344**	-.329**	.271**
Emotional support	-.058	-.379**	-.325**	-.316**	-.347**	.307**
Economic support	-.007	-.317**	-.265**	-.210*	-.262**	.281**
Evaluative support	-.031	-.347**	-.305**	-.360**	-.331**	.333**
Social support	-.046	-.383**	-.325**	-.334**	-.350**	.325**

** : p<0.01

3.4.3. 자아존중감 정도에 따른 양육 스트레스

자아존중감의 정도에 따른 양육 스트레스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가족 및 사회적 관계와 관

련된 스트레스를 제외한 일상생활 관련 스트레스(p=.001), 장애인인·교육 및 예후와 관련한 스트레스(p=.001), 부정적 심리상태와 관련한 스트레스(p=.016)한 하위요인과 총 양육 스트레스(p=.0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able 5).

Table 5. Difference of stress according to degree of self-esteem (N=134)

Variable	Daily life stress	Family, social relation stress	Cause, education and prognosis stress	Negative emotion stress	Parenting stress
<Mean (n=62)	3.15±0.51	2.96±0.43	2.91±0.57	3.47±0.44	3.23±0.58
≥Mean (n=72)	2.89±0.45	2.76±0.62	2.59±0.63	3.29±0.62	2.76±0.41
t(p)	3.01 (.001)*	2.85 (.111)	2.74 (.001)*	3.37 (.016)*	2.98 (.001)*

* p<0.05

4. 논의

본 연구는 정신지체아 어머니를 대상으로 양육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및 사회적지지 정도를 확인하고, 각 변수 간 상관관계를 파악함으로써 정신지체아 어머니들을 위한 간호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로 제시하고자 시도되었다.

정신지체아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정도는 평균 3.01점으로 나타났는데, 장애아 어머니의 스트레스를 조사한 Kim²⁾의 연구에서는 2.39점, 뇌성마비아 어머니의 스트레스를 조사한 Jung¹⁴⁾의 연구에서는 2.65점, 만3~6세 유아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Park²¹⁾의 연구에서는 2.32점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대상자가 양육 스트레스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18세 미만의 장애아동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Lee, Kim과

Lee⁷⁾의 연구에서의 3.47점보다 낮게 나타났으나 자녀의 장애 유형을 제한하지 않은 연구와의 비교에는 어려움이 있다. 특히 8세 이상의 정신지체아를 양육하고 있는 어머니의 스트레스 정도가 높게 나타나 Ahn²²⁾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는데 이는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사회적 관계와 환경적 자극의 증가로 인한 자녀 양육의 어려움이 더욱 심각해지는 것을 의미한다²³⁾. 양육 스트레스 중 장애인인, 교육 및 예후와 관련된 스트레스가 가장 높게 나타나 Lee, Kim과 Lee²¹⁾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는데 자녀의 장애문제, 자녀의 상태변화에 대한 대처의 어려움 등으로 교육적 영역의 스트레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대상자들이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장애아의 교육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감소시켜 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 생각된다.

건강상태가 좋은 경우 양육 스트레스는 낮으

며, 자아존중감은 높게 나타났는데, 1세 미만의 영아 어머니를 대상으로 양육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및 양육태도관계를 파악한 Kim과 Song²⁴⁾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따라서 정신지체아 어머니의 건강에 대한 간호교육적 접근은 장애아 어머니들의 스트레스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보건교육 및 건강관리 프로그램 제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장애 자녀의 성별은 스트레스 정도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는데, 이는 Hartley와 MacLean²³⁾, Jang¹⁾과 Kim²⁾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자녀의 장애 정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Chung⁶⁾과 Ahn²²⁾의 연구 결과처럼 장애가 심할수록 스트레스를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체장애 아동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Lee²⁵⁾와 Hwang, Kim과 Yoo 등²⁶⁾의 연구에서는 장애 정도가 낮을수록 양육 스트레스는 낮으며 삶의 질이 높게 나타났다. 즉, 장애아 어머니는 자녀의 성별보다 장애의 중증도가 높아 일상생활 전반에 대한 자녀의 어머니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수록 어머니의 여가시간은 감소하여 양육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된다.

양육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양육 스트레스 하위요인 별로 보면 일상생활과 관련된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의 하위요인과의 관계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를 제외한 모든 관계에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고 있다고 지각하는 어머니가 양육 스트레스를 낮게 느낀다는 것이다. 자아존중감과 양육 스트레스와의 관계는 가족, 사회적 관계에서의 양육 스트레스를 제외한 나머지 하위요인과 총 양육 스트레스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자아존중감이 낮은 집단이 자아존중감이 높은 집단에 비해 양육 스트레스를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낮은 자아존중감이 양육 스트레스 지각을 증가시키고, 부정적인 정서를 초래한다는 Hartley와 MacLean²³⁾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또한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심리적 어려

움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스트레스 사건에 덜 취약하여 회복력이 있다는 Singer, Ethridge와 Aldana²⁷⁾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정신지체아의 보호와 양육의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어머니들의 양육 스트레스는 정신지체아의 생활과도 밀접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대처능력 향상의 요인이 될 수 있는 자아존중감 증진과 유지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이와 관련된 프로그램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지의 하위요인 별로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정보적, 정서적, 물질적, 평가적 지지는 모두 자아존중감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heng과 Furnham⁸⁾의 연구에서도 사회적 지지를 통한 자아존중감의 증진은 양육 스트레스 지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여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하였다.

정신지체아 어머니가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와 양육스트레스의 상관관계에서는 하위요인인 일상생활과 관련된 스트레스를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반면 자아존중감이 높은 집단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스트레스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어 자아존중감은 의미 있는 요인임을 추측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은 높으며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양육 스트레스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가 자아존중감을 위협하는 부정적인 사건의 발생을 예방해주고, 부정적인 사건에 직면한 개인의 자아존중감을 계속 유지시켜주며, 사회적 지지가 자아존중감을 고양시킴으로서 스트레스 사건의 부정적 효과를 완화시킨다고 볼 수 있다²⁸⁾.

또한 대상자들의 사회적 지지 중 하위요인인 정보적 지지의 정도가 가장 낮았으며 양육스트레스 중 하위요인인 장애원인, 교육 및 예후와 관련한 스트레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장애와 관련한 교육, 치료 및 예후 등 자녀 양육을 위해 준비하고 계획해야 하는 부모에 대한 정보 제공이 부족한 것을 반영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가사조력자의 유무와 자녀의 장애 정도는 양육 스트레스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어 자녀의 장애 정도에 따라 가사조력자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사회적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정신지체장애아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 자아존중감 향상과 유지, 장애자녀의 교육 및 예후와 관련한 실질적인 정보와 건강관리 내용을 포함한 간호중재 프로그램개발과 적용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정신지체아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자아존중감 및 사회적 지지와의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정신지체아 어머니를 위한 간호중재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신지체아 어머니가 경험하는 스트레스를 하위요인 별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장애인, 교육 및 예후에 관련된 스트레스(3.37±0.41점)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둘째, 일반적 특성에 따른 양육 스트레스를 파악한 결과, 가사조력자 유무($t=1.75, p=.001$)와 자녀의 장애정도($F=9.363, p=.000$)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자아존중감의 정도는 학력에 따라 유의한 차이($F=7.148, p=.001$)가 나타났다. 사회적지지 정도는 종교 유무에 따라 유의한 차이($t=1.68, p=.001$)가 나타났다.

셋째, 사회적 지지와 양육 스트레스의 하위요인별로 구분하여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일상생활과 관련된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의 하위요인과의 관계에서만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제외한 모든 관계에서는 부적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넷째, 사회적 지지의 하위요인별로 구분하여 자아존중감과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자아존중감 정도와 모든 하위요인에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정신지체아 어머니를 대상으로 장애자

녀 양육에 필요한 교육적 정보 제공과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상담 등 상황에 따른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둘째, 정신지체아 어머니의 자존감 향상과 유지를 위한 간호중재의 적용으로 양육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자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의 대상은 U시 소재의 정신지체 장애인 이용시설의 협조를 얻어 편의 추출하였기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는 어려우므로 대상 지역과 인원을 확대한 반복연구의 시도를 제언한다.

References

1. Jang EJ, A study on parent's rearing stress of a handicapped child. *Asian journal of Child Welfare and Development*. 2007;5(2);123-137.
2. Kim HJ. The influence that parents of disabled children's parenting stress has on abuse of disabled children-the moderation effects of social supports. *Journal of Rehabilitation Research*. 2014;18(1);113-134.
3. Statistics Korea, 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_01List.jsp?vwcd=MT_ZTITLE&parentId=D, 2016.
4. Choi JS, Lee MH. A study on parenting stress with disabled children and the quality of life.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Occupational Therapy*. 2005; 13(3);43-52.
5. Han YR, Lee MH, Bang MR. Health education needs of mothers who are caring for children with disabilities. *Journal of Korean Academy Child Health Nursing*. 2006;12(10);44-56.
6. Chung JK. Stress and a proper step of the mother who has a children with physical disability.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 Theory and Practice*. 2009;10(4);245-265.
7. Plummer D. *Helping children to build self-esteem. A Photocopiable Activities Book*. Jessica Kingsley Publishers. 2001.
8. Cheng H, Furnham A. Perceived parental rearing

- style, self-esteem and self-criticism as predictors of happiness.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2003;5(2);1-21.
9. Lee JH, Kim HY, Lee JH. A study on maternal stress in rearing children with disabilities and maternal quality of life. *Journal of Korean Academy Child Health Nursing*. 2007;13(1);5-12.
 10. Hwangbo O, Park YJ. The Analysis on the causal model physically disabled women's social support, social integration and quality of life. *Journal of Rehabilitation Research*. 2010;14(3); 229-324.
 11. Park JK, Seo BS, Kim HR. The study for the factors of core competency and self-perception of parents in the care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Korean Journal of Physical, Multiple, & Health Disabilities*. 2011;54(1);61-85.
 12. Lee HY. The effects on self-esteem of parenting attitudes perceived by siblings without disabilities in adolescence. *Korean Journal of Parent Education*. 2015;12(1);17-37.
 13. Ahn JS, Oh SJ. A study on the effect of group art therapy on decrease in parenting stress and increase of self-esteem of the parents with challenged children. *Journal of Arts Psychotherapy*. 2012;8(1);21-39.
 14. Lee OD, Bak SH, Jeong HD. The effects of empowerment programs for parents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on mothers' efficacy. *Korean Journal of Early Childhood Special Education*. 2015; 15(2);65-84.
 15. Holroyd J, McArthur D. Mental retardation and stress on the parents: a contrast between Down's syndrome and childhood autism. *American Journal of Mental Deficiency*. 1976;80(4);431-436.
 16. Crnic KA, Greenberg MT, Ragozin NM, et al. Effects of stress and social support on mothers and premature and full-term infants. *Child Development*. 1983;5(4);209-217.
 17. Jung EJ. The Influence of parenting stress on child abuse in developmental disability children's mothe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won University, 2008.
 18. Rosenberg M.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5.
 19. Jeong JC. The effects of leisure-sport participation on self-esteem and life satisfaction to disabilities application to the spinal cord injury in badminton club members. *Korea Journal of Tourism and Hospitality Research*. 2014;28(2); 139-159.
 20. Park JW. A study on development of the social support scal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1985.
 21. Park DY. The relation among parenting stress, anger and anger expression in infant's mothers. *Journal of Korea Academy 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12;13;1170-1177.
 22. Ahn SY. The of effects that parenting stress, depression and disability acceptance of developmental disability children's mothers have on child abuse. *Korean Council of Physical, Multiple and Health Disabilities*. 2015;58,(1); 219-238.
 23. Hartley SL, MacLean WE. Stress and coping strategies, *American Journal of Mental Retardation*. 2005;110(4);285-297.
 24. Kim YM, Song HN. The moderating effect of mother's self-esteem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stress and parenting behaviors of mothers with infants. *Korean Journal of Child Care and Education Policy*. 2015;9(2);71-88.
 25. Lee CR. A structural analysis : quality of life for mothers of adolescences with disabiliti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Dankook University, Seoul, 2004
 26. Hwang HS, Kim HS, Yoo IY, et al. Parenting stress in mothers of premature infants. *Child Health Nursing Research*. 2013;19(1);39-48.
 27. Singer GH, Ethridge BL, Aldana SI. Primary and secondary effects of parenting and stress man-

- agement interventions for parents of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meta-analysis. *Mental Retardation and Developmental Disabilities Research Reviews*. 2007;13(4);357-369.
28. Kim EK, Koh CK. The relation of parenting stress, anger and somatization symptom of mothers. *The Korean Journal of Stress Research*. 2016;24(3);151-160.